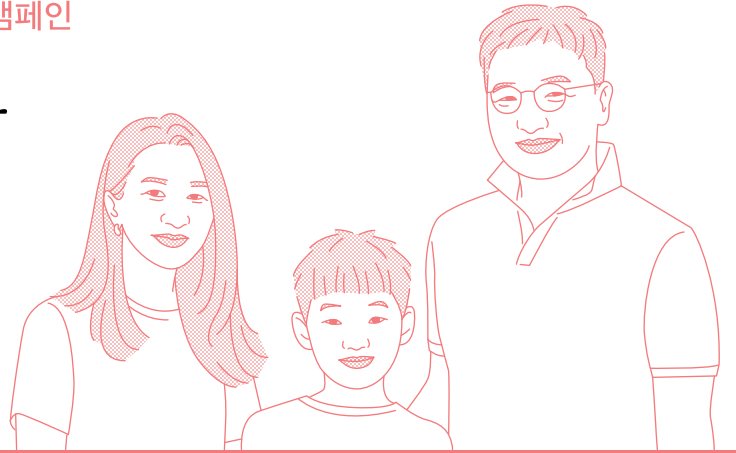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9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기부는 좋은 습관입니다



김중영^{헨리코}, 조익희^{요안나} 가정

“기부는 좋은 습관입니다. 나아가 문화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소외된 곳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김중영^{헨리코}. 조익희^{요안나} 부부는 습관, 문화라는 단어로 나눔을 설명했습니다. 나눔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선진국보다 부족한 한국에서 나눔이 습관이 되어 조금씩 문화로 자리 잡히면 좋겠다는 바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눴을 때 상대방이 행복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쁨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내 처지가 나를 행복하게 할 때도 있고, 나누는 행위에 대한 칭찬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눔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나눔을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일도 경계합니다. 나눔을 수치화해 경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종 1은 기부할 수 있지만, 2를 가진 상황에서 1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눔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실천이기에 ‘좋은 거니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반발심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들 동하^{다니엘}에게도 나눔이 습관이 되게 해주려 노력할 뿐, 어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가 깨달길 바라서입니다. 동하도 이러한 나눔 철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해 동하 생일에 기부를 했어요. 동하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기부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재작년에는 본부를 방문해 기부금을 직접 전했는데, 아픈 친구들에게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듣고 신부님과 직원분의 따뜻한 환대와 격려를 받더니 무척 고무되어 앞으로 더 많이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들은 말합니다. “나눔이라는 좋은 습관이 아이에게, 또 아이의 자녀에게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나눔이 의무가 아닌, 모두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의 특별한 시작, 생애첫기부

‘생애 첫 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신청 및 문의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27-2299)

매일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오빠 양OO입니다.

2011년 10월, 식당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계십니다.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되신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에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생으로 입학한 대학도 포기하고, '언젠간 뽀이 오겠지,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스스로 위안하며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쇠약해진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약 잘 먹고 다시 일도 시작할 거라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1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네 가족이 모일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게 밀린
어머니 병원비, 집세, 생활비 등 당장 닥친 문제들만으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알아봤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힘에 부치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남은 동생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마저 지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이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동생이 저를 보고 내뱉은 첫 마디는
"오빠 돈 쓰게 해서 미안해."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동생의 치료비까지 저 혼자 세상과
싸우기엔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지만 동생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도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뿐인 동생과 제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지난 3월 본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 환자의 오빠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부모의 치료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이어온 남매, 이제는 동생마저 쓰러져 오빠는 동생의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본부와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사소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나눔의 씨앗으로 더 많은

아픈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환자 치료비 후원하기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98-33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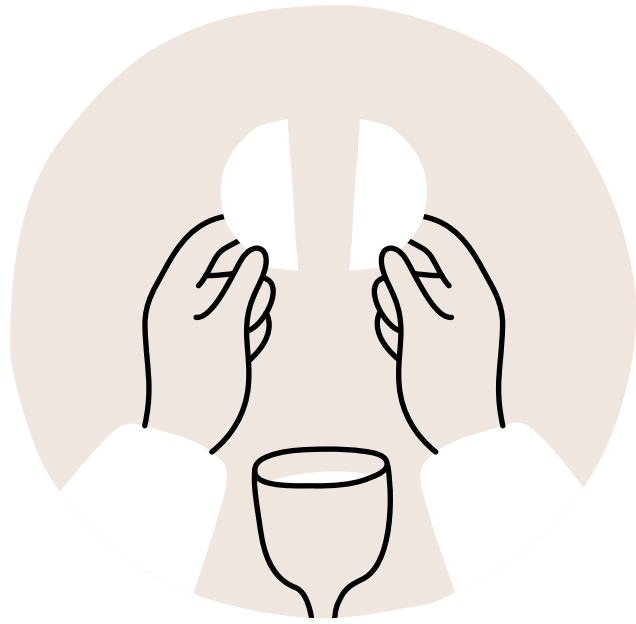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례미사 및 특강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본부를 후원해주시고, 활동에 함께해주신 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2019 한마음한몸 월례미사 및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모성월인 5월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을 주제로 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선물같은 시간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일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특강 10시 30분 ~ 11시 30분
월례미사 11시 40분 ~ 12시 30분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신청방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74-3488)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강의별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월례미사 및 특강 내용

날짜	특강자	특강 주제
5월 31일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
6월 28일	이정민 비오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성경 속의 사랑 실천
7월 26일	배우 손숙 헬레나	배우이자 나는 그리스도인 - 토크콘서트
8월 30일	윤용찬 (주)WHY약관교실 대표)	몰라서 못 받는 보험 - 특강 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 1:1 무료 상담 및 보험금 청구 문의진행
9월 27일	나종민 알베르토 (바라봄 대표)	외국계 회사 지사장에서 착한 사진가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
10월 25일	신정훈 미카엘 신부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실천하는 신앙인
11월 29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	지구촌 생생정보통 모니터링 현장 이야기
12월 27일	주교 유경춘 디모테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성체성사의 삶

※ 신청 취소를 원하시면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취소 없이 불참하실 경우 다음 참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첫기부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첫 번째 기부

강태윤 2019.01.20생 父 강봉진 母 김선애 | 권도영 2019.02.24생 父 권혁진 母 허보람 | 김라윤 에스텔 2018.04.23생 父 김지겸 母 한희명 | 김주원 2018.01.24생 父 김희상 母 이수경 | 김태리 2018.06.28생 父 김도현 母 우리라 | 포아(태영)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맹한호 2018.03.21생 父 맹준재 母 이승현 | 박진우 대건 안드레아 2016.08.22생 父 박상현 母 채경아 | 박서아 2018.03.27생 父 박준철 母 이진주 | 박애나 로즈마리 2018.02.24생 父 박희호 母 김현정 | 배유림 2018.03.21생 父 배재영 母 서상미 | 손여원 2018.03.07생 父 손찬호 母 배성희 | 손준민 안토니오 2018.04.14생 父 손동진 母 김보림 | 안예주 2017.12.25생 父 안태준 母 최명현 | 안유주 2015.12.24생 父 안태준 母 최명현 | 양서준 2013.10.07생 父 양준석 母 정재은 | 양승준 2015.09.23생 父 양준석 母 정재은 | 이상윤 2018.12.30생 父 이강혁 母 장근영 | 이서진 2018.02.28생 父 이규철 母 이명영 | 이을 2018.03.09생 父 이종원 母 황성희 | 이재이 마카엘라 2017.02.16생 父 이왕원 母 정초아 | 이준 2018.09.21생 父 이지민 母 사토 레나 | 이준우 다니엘 2010.02.17생 父 이한규 母 박현영 | 이지민 조세아 2011.03.14생 父 이한규 母 박현영 | 임성중 베드로 2001.03.21생 父 임진주 母 이봉숙 | 전제을 2012.03.21생 父 전상호 母 박정은 | 정유나 벨라베타 2018.03.06생 父 정재용 母 이종은 | 정유준 2018.04.11생 父 정정용 母 윤진영 | 채일무(태영) 2019.06.(출생예정) 父 채윤제 母 류하늘 | 최아원 2018.12.09생 父 최홍빈 母 이우라

두 번째 기부

김상우 2017.03.23생 父 김성룡 母 이화선 | 김서현 2016.03.21생 父 김상철 母 이보림 | 김재민 스텔라 2017.04.09생 父 김태완 母 이주희 | 박로아 라파엘라 2017.03.15생 父 박대원 母 안솔임 | 배우아 페르페루아 2017.03.21생 父 배봉현 母 옥혜리 | 범은우 2018.02.22생 父 범지원 母 고준경 | 서지을 스피라스티카 2017.02.02생 父 서현석 母 지소영 | 신정훈 가브리엘 2012.02.14생 父 신인호 母 이지민 | 유시오 2018.12.19생 父 유경우 母 김연주 | 이도열 스테파노 2016.03.08생 父 이원희 母 박상은 | 이세아 스텔라 2018.05.08생 父 이동훈 母 오은샘 | 장하준 바오로 2012.04.24생 父 장중희 母 임승애 | 조예준 2016.04.03생 父 조운하 母 원지영 | 함현서 라파엘 2012.01.01생 母 이보미 | 홍소원 2018.04.26생 父 홍한솔 母 김지연 | 황시연 루치아 2017.03.24생 父 황용서 母 김유나

세 번째 기부

김서민 2016.03.23생 父 김성진 母 이혜란 | 김유안 비오 2017.03.20생 父 김호선 母 정우경 | 김지유 비비안나 2016.03.28생 父 김주한 母 김민희 | 김태은 2016.03.26생 父 김준호 母 최진숙 | 김하경 마카엘라 2016.03.02생 父 김한준 母 이재은 | 김해나 아녜스 2016.04.20생 父 김희상 母 이수경 | 박건을 2015.03.26생 父 박선주 母 유아림 | 박다예 2015.04.03생 父 박인석 母 신세화 | 송선아 2016.05.16생 父 송병주 母 강민희 | 오선우 요셉 2016.03.24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오하운 2017.02.27생 父 오기열 母 이영비 | 이윤호 레오 2016.03.21생 父 이선호 母 김규빈 | 이재운 노엘 2013.03.29생 父 이승희 母 윤선애 | 이한 프란치스코 2017.03.11생 父 이정훈 母 김지은 | 진익준 프란치스코 2016.01.23생 父 진민호 母 김문주

네 번째 기부

권도은 임마누엘 2015.04.05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박소을 2011.09.21생 父 박선주 母 유아림 | 손준혁 율리오 2015.04.20생 父 손동진 母 김보림 | 송다니엘 다니엘 2016.03.05생 父 송승희 母 오미카엘라 | 오윤성 토마스 아퀴나스 2015.01.30생 父 오형석 母 이은희 | 오윤진 체라 2012.04.14생 父 오형석 母 이은희 | 이수현 프란치스코 2015.03.10생 父 이수상 母 박현진 | 차건호 레오 2015.03.02생 父 차동열 母 송정하

다섯 번째 기부

권성은 다니엘 2014.03.05생 父 권정근 母 김은혜 | 박하은 일루미나 2013.03.08생 父 박찬익 母 하영재 | 서하을 프란치스코 2013.03.14생 父 서지훈 母 김수연 | 이지유 로사리아 2015.03.04생 父 이도훈 母 오은샘 | 조원재 토마스 아퀴나스 2014.02.25생 父 조장호 母 이세라 | 한테레사 데레사 2009.03.22생 父 이재환 母 한소진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

본부는 명동대성당 1898광장 내에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에 발맞춰 생명나눔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가톨릭교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전화 02)3789-3488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여섯 번째 기부

박수민 클라우디아 2012.11.01생 父 박해운 母 김지연 | 정우혁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 정하준 마카엘 2013.04.10생 父 정용욱 母 안명은 | 조윤재 알로이스오 2014.03.12생 父 조현진 母 조호진 | 주하은 클로틸다 2014.02.13생 父 주정호 母 김동희 | 최은 마리스텔라 2013.03.13생 父 최지완 母 김희현

일곱 번째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생 父 구성관 母 박혜은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중문 母 정희정 |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 박지을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여덟 번째 기부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혜선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중문 母 정희정 |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父 정용운 母 김예리 |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아홉 번째 기부

한시은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스물세 번째 기부

이승우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생일 기부

김남욱 글라라 | 송승준 카시미로 | 이광무 요한 | 최민영 요안나 | 한지희 아녜스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이승철 미카엘 & 황유진 카타리나 결혼 1주년 기념 | 이선민 라파엘 & 문경자 라파엘라 결혼 10주년 기념 | 이정민 안드로시오 & 최윤금 아셀라 결혼 5주년 | 이정수 다니엘 & 강승현 수산나 결혼 D-100 기념 | 임진규 대건 안드레아 & 이봉숙 순이 바르바라 결혼 21주년 기념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두경자 베르나데타 | 故 홍진용 루카

감사기부

김정선 데레사 | 예준 & 원우 가족 | 이경수 마카엘 첫 월급 기념 | 임지환

활동내용

-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상담 및 접수
- 기타 생명나눔 관련 상담
- 명동성당 및 성지 안내(주말), 교회정보제공, 외국어봉사자운영(주말/영어, 일어, 중국어)

운영시간

• 월, 화: 10:00~18:30 / 수~일: 10:00~19:00

장소

• 명동대성당 1898광장 지하 1층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나눔가게·기업을 신청하시면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1년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 현재 약 1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80호점	전북 익산 고봉로 오거리약국
281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바글바글꽃집
282호점	서울 노원 동일로 와이맥스북점기
283호점	서울 송파 오금로 세움아이엔디
284호점	서울 서초 서초중앙로 ㈜유니티드
285호점	서울 성북 보문로 ㈜파인글로벌
286호점	서울 은평 통일로 이플악초협동조합
287호점	서울 서초 서초대로 비엔제이건축사사무소
289호점	서울 중구 퇴계로 유정
290호점	서울 강남 선릉로 카페 마가렛
291호점	경기 성남 분당 방아로 ㈜대한특송취합물류
292호점	서울 종로 종로5길 박보연 간장계장과 삼겹살
293호점	서울 영등포 국제금융로 바다안
294호점	경기 성남 분당 정자일로 ㈜한울트레이딩
295호점	경기 성남 분당 서현로 모유육아상담실
296호점	서울 노원 상계로 소담약국
297호점	서울 구로 디지털로 ㈜이리랑이온
298호점	서울 성동 광나루로 세우회계 경향
299호점	부산 부산진 부전로 포미전테크
300호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우나 스텔라
301호점	부산 강서 명지국제로 명지비인후과
302호점	경기 남양주 미금로 녹색카페 모든이에게모든곳
303호점	서울 구로 디지털로 이우코퍼레이션㈜
304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K&MT
305호점	서울 강남 도산대로 소프트스티튜
306호점	서울 강서 양천로 행운부동산
307호점	서울 강북 노해로 임치과의원
308호점	경기 의정부 평화로 안경창고서관
309호점	서울 마포 양화로 오선스트레이딩
310호점	서울 중구 청계천로 프레페페
311호점	서울 양천 오목로 유니맥스
312호점	서울 마포 마포대로 주식회사 뷰코셋코리아
313호점	전남 여수 성산로 ㈜삼일엔지니어
314호점	서울 성북 화랑로 서울에담치과
315호점	인천 중구 논골2길 ㈜파라다이스산업개발
316호점	서울 강남 강남대로 디에스텔

※ 기준: 2018. 2. ~ 2019. 3.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4,397명

2019. 4. 4. 현재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은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세상을 만들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65일 나눔실천 운동입니다.

-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문의 02)774-3488